

사설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25세 장애인 가수 최여름양의 사연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지난 2008년 전국장애인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유명해진 최여름양은 요즘도 전국 각지에 초청받아 노래를 부른다. 가끔 방송 등 언론매체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명세를 탄 것과 상관없이 그녀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힘겹기만 하다. 그녀 스스로 ‘천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각장애3급은 어찌보면 큰 상처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예 안보이는 사람에 비해 희미하게나마 사물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도 혼자서 먹을 수 있고, 길을 걸을 때 지팡이 등 별도 보조기구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녀는 시각장애와 함께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간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온 지난 14년간 이발소에서 보조로 일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오면서 그녀는 많은 날을 눈물로 지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마음과 함께, 가난도 그녀를 힘겹게 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입고 싶은 옷도 입을

수 회장은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행사 때마다 무대에 올려 그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국장애인가요제에서 대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김회장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여름양은 이제 25세의 청년이어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

청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최여름 후원회’ 등의 결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미풍양속을 유지해왔다. 심지어 먼 이웃나라의 재난에도 관심과 성금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 출신인 여름양에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지가의 출현이 아쉽기만 하다.

여름양의 노래를 들어본 많은 이들은 그녀의 노래는 곡에 대한 감성적인 해석이 풍부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매력 있다고 한다. 그녀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실어주자.

‘장애인 가수’ 최여름양의 경우

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지 못했다.

이처럼 남들이 좀처럼 겪기 힘든 기구한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희망을 준 것은 노래였다. 중학교 1학년때부터 음악에 두각을 보인 여름양은 고성지역 음악 동아리인 ‘한소리음악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됐다. 특히 김영

러나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 힘든 공간이다. 따라서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여름양에게 이제는 지역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때마다 초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 논설위원



노인복지도 취향에 맞게

노인복지란 국가 사회적 平和平溫(평화 평온; 화목하여 따뜻함)·경제적 豐饒安定(풍요안정; 넉넉 풍성 평안함)·문화적 享 有生活(누림 삶)하고, 건강한 삶을 潤澤營 爲(다스려 이익이 되어 윤기가 나는 살림)·人間尊貴(인간존귀; 사람을 주요 하게 생각하고 서로 귀하게 받드는 것)를 보장·和氣靄靄(따뜻한 분위기)한 분위기를 助長(조장; 도와 힘을 북돋움)되어 大吉祥 止(최상 좋은 행복이 머물음)하고, 恒常(항상; 늘) 幸福感(행복감; 흐뭇함)에 젖는 데 있다.

고령화시대 내지 초 고령화시대에 도입(과학기술생명연장·식생활개선)으로된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복지)가 ‘가칭’ ‘개인복지(개성취향에 맞는)의 길에 섰다’고 할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제에서 생활가정 주간보호 방문보호 요양보호 등 개성 또는 취향에 따른 경우와 아니면 필요적 선택적 보호라는 점에서 smart phon hood (스마트 폰 시대-세계는 나의 손바닥 안에서, 相逢對 面交信상봉대면교신; 서로 만나 맛보고 주고 받음 기쁨)하며 變動狀況(세계의 이모저 모 변동 상황 정보 새 소식 화상)을 통한)을 볼 수 있는 digital시대(손아귀무리수세상)가 되었다.

이에 걸 맞는 영아보험으로부터 노령보험에 이르기까지 재원중당의 필요불가결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하고자하는 老將(노장;백전백승장수)들에게 SOS (save our ship;재난구제요청)가 요

청된다할 것이다. 21cent 지향하는 국가 사회가 보장하는 ‘가칭, 노장보장제도화’를 겸하여 (취업희망자 창업희망자 단순일 희망자의 활성화 기타) 이 세상을 지킨 영원한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본 직업의 명예직 부여 하거나 또는 ‘적성과 희망 따라 부여활동을 하게 하거나’, ‘요양등급제 개선’ 등을 통하여 ‘노장 간, 노장의 노동력을 중당 최대로 활용’이 필요하다하겠다.

경험체험 成功失敗(성공실패)거듭 또는 乘勝長驅繁榮 (승승장구 번영; 계속 번성함) 한 이들의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고려정자 모습이 다시 출연되어 재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곧 자손만대의 영원한 번영·행복에 계승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반대 저항에서도 발전함은 찾아볼 수 있으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 생산의 보장(기업 개인 일하는 사람을 존중보장 보험 신리사회의 구축)은 이들에겐 첫째

최소한 소득보장(노동능력 있는 사람은 실업을 완전고용 실업자 퇴치) 둘째 투명한 분배(기업 발전기금 형성 필요)가 실천되어야 하고 셋째 지출은 근검절약한 가운데서 명랑사회가 이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직업군을 대폭 개발 또는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가 중요하겠다. 노장은 물론이거니와 이외 노인은 현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 공급확충 시설보완, 사회보험으로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교통수당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 등 제도보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령 할아버지 114세 goodbye (미국인 월터 브로닝 타계) 국제자 선단체 슈라이너스에서 99세까지 봉사활동 했으며 장수의 비결은 그 하나는 식사는 아침 점심 두 끼만 식사, 사회생활을 할 것, 몸과 마음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장들에게서 노동력과 경험체험 받아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예가되겠다. 노인으로서 원하는 사람은 특별 우대 하는 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생각이다. 중앙시장 입구 산나물 콩 쌀 조 수수 등 잡곡물을 파시는 할머니 속초시 중앙시장주차장 입구 감자떡 파시는 8순 할머니 보시면... 應當再考(응당재고; 마땅히 거듭 고려) 되어야 된다는 것.

17회를 이어 진과 가자의 신비를 알아 건강 미담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 18.毒瘡癰腫 (독창옹종; 오래된 종기);- 식초 가지 찢어 바름
- 19.乳頭破裂症 (유두 파열증; 젖꼭지 깨어져 통증)-묵은 가지 태워 참기름에 개어 바름
- 20.魚類 食中毒 (어류식중독; 생선 먹고중독)-날 가지 즙 복용
- 21.大腸下血便血 (대장하혈 변혈; 변에 피 묻어 나옴)-서리 맞은 가지 꼭지를 모두 태워 재로 식전 술 풀어 복용
- 22.晩成 子宮 出血 (만성 자궁 출혈;오래된 자궁 염증 피 흘림)-참대 칼로 가지를 썰어 말려 가루를 식전복용
- 23.皮膚(피부)사마귀 흡집-날 가지 즙 바름
- 24.咽喉痛 喉腫(인후통후종 ;목구멍종기염증통증)-날 가지를 간장 담가 3-4시간 후 천천히 먹음
- 25.蟲 蝕風齒 (풍치; 치아가 시리고 아픔)-황색 가지 씨 말린 꽃, 태운 재를 치공에 바름.
- 26.衝突打撲瘀血 (충돌타박 응혈;부딪혀 먹짐 응혈)-묵은 가지를 구워 가루를 매시 마다 술로 복용한다. 우리 주변 신과 가자를 알자!

◇편집국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마다 트랙터로 밭을 갈고, 법씨파종을 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민족은 옛부터 모내기나 밭갈이, 추수 등을 할 때 이웃끼리 노동력을 교환하던 ‘뫼앗이’ 풍속이 있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이런

풍속이 거의 사라져 농번기만 되면 농가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도 무색해진 요즘이지만, 농사일로 바쁜 지역 농민들을 위해 주말에는 직장 동료 또는 가족들과 함께 농촌일손돕기에 나서는 것도 의미있다고 하겠다.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